

對話와 만남이 없는 大學

金 燦 國
(延世大 敎學副總長)

1989년부터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요청으로 교수학생협의회(敎學協議會)가 조직되어, 학교당국과 총학생회 대표들이 자리를 같이하며 당면한 과제를 놓고 대화하고 협의하면서 중요 과제들은 학교당국에 건의하여 해결 또는 미결로 일을 처리해 오고 있다.

교학협의회의 설치동기는 학생들의 요구를 학교당국에 건의하고 함께 심의하는 窓口를 單一化하는 데 있다. 이는 학교본부 대표로 기획실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원주캠퍼스 학생처장 등 4인, 교수평의회 대표 교수 3인, 총학생회 대표 4인(원주캠퍼스 대표 1인), 대학원 총학생회 대표 3인으로 구성되며, 의장(사회자)은 교학부총장이 맡고 있다.

이 기구는 協議會로서 학교측 제안과 학생측 제안을 심의·협의·결의하여 최종적으로 總長에게 건의하는 순서를 밟게 된다. 교학협의회는 3개 분과위원회, 즉 학교발전·재정·교과과정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기 대표를 세 분과에 배정하고, 분과에서 심의·연구한 案은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학생측은 이 기구를 議決機構화해야 한다고 해마다 주장하고 나서지만,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학교의 의결기구는 교무위원회 하나뿐이고 교수들로 구성된 다른 여러 위원회들도 모두 협의회로서 합의사항을 총장에게 전달하여 결재가 나면 실행하거나, 총장의 수정 또는 재심 의뢰 요청이 있으면 다시 심의가 진행된다고 설득한다.

그동안 이 기구를 통해서 실현을 본 것으로는 교양과목에 대한 학생측 안과 교수들이 심의한 교과과정위원회의 안을 교학협의회에 상정·결정하여서 학생들이 연구·제시한 새 과목들을 개강하도록 한 바 있다. 교내서점, 문방구, 잡화점, 자판기, 매점 등의 운영·관리도 외부 업자에게 맡겼던 것을 총학생회 복지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학생처 복지과를 통하여 학교당국이 直營하도록 하는 변화를 가져 왔다(여기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물론 정식 학교직원이 아님). 또한 당일 수입금은 모두 재무처로 입금하며, 순이익이 올라가면 학생장학금을 늘리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일자리도 시간대별로 마련해 주고 있다.

앞으로 교학협의회가 합의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학생과 교직원 전체를 조합원으로 한 소비조합(공계조합, 후생조합) 같은 큰 기구를 종합적으로 만들어 불품을 할인 판매하고(책은 제외), 수입금은 조합원 전체의 복지를 위해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연세종합소비조합과 같은 기구 설치를 위해 현재 학생측 연구안과 학교측 연구안을 놓고 협의가 진행중이다.

교학협의회의 여러 사업 중 가장 어려운 과제는 登錄金 인상 조정문제이다. 해마다 학교측은 물가상승에 따른 등록금 인상안을 내놓고, 학생대표들은 재단 전입금을 많이 받아내어 인상률을 낮추어 달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재정분과위원회 심의시 예산·결산을 다루는 기획실 자료와 재단사무처의 학교전입금 자료 등을 일부 참고로 보여 주기도 한다.

그러나 신입생 합격자 발표전 등록금 인상 폭의 협의과정에서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합의는 못본 채, 회의록에 학생대표들이 학교측 인상안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기고 회의를 마치는 과정을 해마다 겪는다. 이후 전교생에게 인상된 액수의 등록금고지서가 우송되던 약 80 퍼센트 정도 학생들은 기일 안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학후 등록금 연기일까지는 전교생이 거의 등록을 마치는 것을 본다.

오늘날 大學教育에서 가장 긴장감을 주는 일은 교수와 학생 또는 학교당국과 학생 사이에 對話가 잘 안 되는 것이다. 등록금 인상문제로 인한 갈등과 마찰은 결과적으로 教育正常化에 지장을 가져오고 학교당국에게 무거운 부담감을 안겨 주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大學교육 정상화의 과제를 일부 맡고 있는 大學人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忍耐의 對話'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고충을 안고 있다.

교수-학생 간에 대화의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인가? 과거 경권유지 차원에서 軍事文化的의 기류와 간섭이 캠퍼스를 위축시켜 이른바 비민주적 정치행태에 저항·항의했던 학생들을 구속·제적토록 했던 '70~'80년대는 학교당국과 교수들에게 참으로 난처한 부담을 안겨다 줄 수 밖에 없었다. 외압에 의해 학문의 자유가 유린당하고, 대화와 토론이 생명인 학원 분위기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과 교수 사이의 대화 분위기는 역시 학교당국이나 교수들이 먼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강의실에서만이 아니라 학생과의 개별적인 만남의 시간을 마련해 주는 환경조성이 더 필요한 것이다. 어떤 학생은 4년 동안 한번도 교수 연구실을 찾거나 만나서 정담을 나누어 본 일이 없다고 하는데, 학생들보다도 교수의 학생 면접시간 배정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교수들이 오늘날 처럼 연구 및 기타 활동으로 바쁜 때가 없는 실정이지만, 우리 교수들이 학생들과의 만남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학생들도 大學의 自由와 自律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대화를 통해 이해와 협력을 유지하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학교 기물파괴나 농성 등 극단적 행동이 물고오는 피해는 학교 전체에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로써 자제해 나가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결단으로 大學의 難題를 풀어나가도록 하고, 거시적 안목으로 학교 보호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1991년 8월에 일본 동경 부근 YMCA 수양관에서 열렸던 일본기독교교수협의회에 참석했을 때의 주제가 '만남과 대화 없는 대학'이었다. 학부에서는 전문지식 전달·전수로만 그치고 대학원에 가서야 교수와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학생 수 증가에 비해서 교수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과의 대화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교수의 수를 늘려서 학문과 교육을 통한 대화 분위기 조성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